

핫스팟 경찰활동 예정지역에서의 범죄두려움과 그 영향요인 분석: 다목적기동순찰대 운영지역과 인접지역 간의 비교

심명섭* · 이창한**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다목적기동순찰대를 통한 핫스팟 경찰활동이 시행될 지역에서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의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요인들(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경찰활동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범죄두려움은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은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두 지역 모두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공통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경찰활동 인식과 범죄두려움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의 선정기준에 범죄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기동순찰대 운영은 가시적인 순찰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질서 개선, 주민과의 접촉 증대, 경찰활동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주제어 : 범죄두려움, 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경찰활동 인식, 다목적기동순찰대, 핫스팟 경찰활동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주저자)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교신저자)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 론 |
|---|

I. 서 론

우리나라의 범죄예방활동은 그 동안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경찰관의 인력 증원과 함께 많은 성과를 올린 것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갈수록 다양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범죄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경찰활동의 접목으로 치안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 경찰인력과 장비 등 경찰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는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경찰활동을 집중시키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과학적인 치안활동의 하나로 ‘핫스팟 경찰활동’(Hot Spots Policing)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핫스팟(Hot Spots)은 범죄가 집중되는 작은 지리적 지역을 의미하는데, 많은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핫스팟에서의 경찰활동이 범죄와 무질서 행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Sherman & Weisburd, 1995; Weisburd & Green, 1995; Sherman & Rogan, 1995a,b; Ratcliffe et al., 2011; Braga et al., 2012).

우리나라 학계와 경찰당국에서도 핫스팟 경찰활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

기는 하나, 아직까지 일선의 경찰관서에서 핫스팟 지역에 대한 경찰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실제로 핫스팟 경찰활동의 효과를 검증한 실증적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가 어렵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범죄통계가 지역단위별로 세세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연구는 사실상 경찰당국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연구수행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핫스팟 경찰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가능하게 만드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야간시간대 범죄취약지역(hot spots)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체감적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다목적기동순찰대(이하 ‘기동순찰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¹⁾ 이러한 기동순찰대는 범죄발생 및 112신고 등 치안수요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기존 지구대나 파출소와는 별도로 40~50명 규모로 만들어진 경찰서 직속의 순찰대이다. 기동순찰대는 경찰서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평상시 관할 내 퍼져있는 범죄다발지역이나 상습 무질서 지역에 대해 순환적으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요 신고사건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며, 그밖에도 기초질서 단속·교통지도·홍보활동 등 다목적 경찰활동을 수행한다. 2014년 8월에 치안수요가 높은 서울 강남 등 10개 경찰서에 기동순찰대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하였고, 이후 2015년에는 20개 경찰서를 추가로 선정하여 시범운영 지역을 30개소²⁾로 확대·운영하고 있다.³⁾ 이러한 기동순찰대의 운영은 향후 우리나라 핫스팟 경찰활동 연구에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동순찰대의 목적과 역할에 비추어볼 때, 기동순찰대 운영을 통해 핫스팟 경찰활동의 범죄감소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이나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동순찰대가 운영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집중순찰 전략이 어떤 효과가 있고 지역주민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핫스팟 경찰활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

1) <http://www.police.go.kr/portal/bbs/list.do?menuNo=200067&bbsId=B0000011>(2014.8.7. 경찰청 보도자료)

2) 서울지역 7개, 경기지역 5개, 부산·인천·광주·경남지역 각 2개, 대구·대전·충남·충북·경북·전북·전남·강원·울산·제주지역 각 1개

3) <http://www.police.go.kr/portal/bbs/list.do?menuNo=200067&bbsId=B0000011>(2015.8.13. 경찰청 보도자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개입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효과를 개입 전·후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기동순찰대 운영 전에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동순찰대 운영지역 선정에 있어서 범죄발생 건수와 같은 객관적 기준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범죄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기준도 고려가 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 이유는 최근 경찰활동의 역할이 범죄감소와 같은 전통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두려움 감소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동순찰대 운영방향과도 연관이 큰 부분으로서, 기동순찰대 운영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범죄안전도를 높이는데 있다면 실제로 범죄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경찰활동 평가를 위한 사전 연구의 성격을 띠며, 그 목적은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에서의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 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을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삼고, 이 대상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비교지역으로 정하여 두 지역 간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경찰활동 인식 등의 관련요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들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 선정기준에 어떠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지와 범죄두려움을 감소하기 위해 향후 기동순찰대의 운영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경찰활동 개입이 있기 전에 그 개입 예정지역과 이웃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 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범죄두려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도 등의 차이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들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지역 간 비교·분석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핫스팟 경찰활동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범죄두려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핫스팟 경찰활동

핫스팟 용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다(Eck, 2005). 다만 통상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가 집중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의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를 범죄다발지역(최응렬·정우일, 2007; 박종승·이창한, 2014) 또는 범죄취약지역(경찰청, 2014)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⁴⁾ 과학 기술과 지리적 정보시스템(GIS) 등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특정 주소지(address)나 거리(street), 블록(block) 또는 이러한 장소들의 군집 등으로 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도시 내 범죄의 약 절반 정도가 도시의 약 5% 이내인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다(Sherman, Gartin, & Buerger, 1989; Weisburd, Bushway, Lum, & Yang, 2004)는 점과, 이러한 지역에서의 범죄 집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stable)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Braga et al., 2010; Weisburd et al., 2004).

경찰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시키거나 경찰의 가시성을 증가시킨다면 범죄예방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실증적 연구들로 인해 학계에서는 핫스팟 경찰활동이 범죄와 무질서 감소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Braga et al., 2012; Lum, Koper, & Telep, 2011;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Weisburd, 2008; Koper, 2014). 예를 들어 Sherman과 Weisburd(1995)는 Minneapolis 市에서 ‘범죄 핫스팟에서의 순찰’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 연구결과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실험지역과 통제지역을 나누어 각각 55개의 핫스팟을 임의로 선정하였는데 실험지역에서의 공식적 범죄가 13% 감소했고 특히 강도는 20%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경찰순찰은 범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기존의 Kansas 市 순찰실험 결과(Kelling et al., 1974)나 Newark 市의 도보순찰 실험(Police Foundation, 1981)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Minneapolis 핫스팟 순찰 실험은 핫스팟 경찰활동에 대한 상당한 학문적·실용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일련의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 이어졌다(Braga et al., 2012). Jersey 市의

4) 범죄다발지역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의미하고, 범죄취약지역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계에서 논의되는 핫스팟의 의미와 유사하긴 하지만, 핫스팟이 범죄의 집중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좀 더 소규모(micro) 단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핫스팟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마약시장 분석실험에서는(Weisburd & Green, 1995), 실험지역과 통제지역에 각각 28개의 핫스팟을 임의 선정하여 실험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통제지역에 비해 실험지역에서의 마약 관련 신고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Ratcliffe과 그의 동료들(2011)이 필라델피아에서 3개월에 걸쳐 실시한 도보순찰 실험에서는, 폭력성 범죄와 관련하여 도보순찰 전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120개의 핫스팟 장소를 식별한 후 무작위로 실험구역과 통제구역을 선정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통제구역보다 실험구역에서의 폭력성 범죄가 23% 감소함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최근 Braga와 그 동료들(2012)은 메타분석을 통해 경찰의 핫스팟 개입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들에서 실시된 25개의 실험 및 준실험 중 20개(80%)에서 핫스팟 경찰활동이 최소한 일부 범죄나 무질서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힘입어 핫스팟 경찰활동은 최근 미국과 서구 여러나라의 경찰기관에서 사용되는 공통된 전략이 되고 있다(Koper, 2014). 100명 이상의 경찰을 둔 경찰기관 10곳 중 7곳이 범죄 핫스팟을 식별하기 위해 범죄지도도를 활용하고 있으며(Weisburd et al., 2003), 192개 경찰기관을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이 폭력성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핫스팟 경찰활동 전략을 사용했다고 한다(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2008; Braga et al., 2014).

2. 범죄두려움과 그 영향 요인

1) 범죄두려움

Garofalo(1981)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위협이나 불안감에 의해서 특징 지워지는 하나의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한 바 있다. 범죄두려움은 지금까지 매우 다양하게 개념화되어 왔는데, 대체로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두려움과 피해 가능성으로서의 두려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장안식 2012). 경험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피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에 대한 주관적 두려움을 함께 고려해야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최인섭·김지선·황지태, 2003). 이러한 범죄두려움은 자신이 특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또는 범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구체적 두려움, 범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일반적 두려움이라고 한다(성용은·최경식,

2009).

우리나라는 범죄와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국가안보 보다도 범죄를 먼저 꼽는다.⁶⁾ 이렇듯 실제 범죄발생율이 객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범죄두려움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며(김상운·신재현, 2012), 이러한 두려움이 확산될 경우 이는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공동체의 안전이 약화됨은 물론 사회기능도 저해될 수 밖에 없다(성용은·최경식, 2009). 최근의 경찰활동이 기존의 범죄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중요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원인모형들은 다양하다. 개인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으로는 범죄피해 모형과 취약성 모형이 있으며, 지역사회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 무질서 모형, 사회통합 모형, 경찰활동 모형 등이 있다. 범죄피해 모형은 직접적인 범죄피해 경험과 간접적인 범죄피해 경험이 범죄두려움을 유발한다는 것이고, 취약성 모형은 여성이나 노인과 같이 범죄로부터 취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범죄두려움의 수준이 높다고 본다(Garofalo & Laub, 1978; 성용은·유영재, 2007). 또한 무질서 모형은 지역에 존재하는 물리적·사회적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며(Taylor, 1999; Wilson & Kelling, 1981), 사회통합 모형은 지역사회의 통합 정도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차이가 존재(Taylor & Hale, 1986)한다는 것으로 사회 응집력, 참여와 같은 집합적 효율성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Sampson et al, 1997; Gibson et al. 2002). 그리고 경찰활동 모형은 경찰관련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박영주·윤우석, 2013)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 만족도, 경찰활동의 가시성 등이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특성과 관련된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17000682>(2015.11.17. 헤럴드경제뉴스, “한국,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넘베오))

6)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2012.12.20. 통계청 보도자료)

2)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집합효율성

지역사회가 얼마나 범죄를 통제하는가와 관련하여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 개념이 사용된다. 집합효율성은 지역사회의 결속력·신뢰(Social cohesion/trust)와 교제·참여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를 중시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간의 결속력과 신뢰도가 높을 때 그것이 범죄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장치로 작용하여 범죄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Sampson et al., 1997). 많은 연구들로 인해 지역구성원들이 상호 신뢰도가 높고 비공식적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가 통제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Sampson et al., 1997, Sampson & Raudenbush, 1999). 그리고 Gibson과 동료들(Gibson et al., 2002)은 집합효율성이 그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밝히면서, 집합효율성이 높으면 범죄가 통제됨으로 인해 범죄두려움을 감소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집합효율성은 사회 결속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포함하는 개념(Sampson et al., 1997)으로서, 사회 결속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같은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민간의 신뢰 정도나 공통의 관심사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관여하는 지로 측정한다(Bursik & Grasmick, 1993; 윤우석, 2012, 민휘경 2013).

(2) 무질서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지역사회의 특성에서 찾는 모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역의 무질서이다.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Wilson과 Kelling(1982)은 지역의 무질서가 지역 내 사회통제력의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질서 지역에는 범죄가 통제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고 보았다. 무질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구분되는데, 물리적 무질서는 그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지, 관리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가 많은지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무질서는 그 지역에 사람들 간 다툼이 많은지, 술에 취한

사람이나 노숙자 등이 많은지와 관련이 있다.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변인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 중 하나가 무질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질서와 집합효율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집합효율성보다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다(Gibson et al, 2002; Ferguson & Mindel, 2007; Franklin et al., 2008). 또한 Ferguson과 Mindel(2007)은, 무질서가 직접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집합효율성은 매개변수로서 범죄두려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집합효율성보다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연구에 있어서도 지역무질서, 집합효율성,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검증한 이성식·박정선·이정환(2012)은, 집합효율성이 지역무질서에 영향을 주고, 지역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무질서를 범죄두려움의 유발요인으로, 집합효율성을 범죄두려움의 통제요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상호간의 작용에 관심을 둔 연구도 있는데, 예를 들어 Ross와 Jang(2000)에 의하면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지만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같은 집합효율성이 그 영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 경찰신뢰도 및 경찰활동

범죄두려움은 경찰신뢰도나 경찰의 활동수준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경찰이 효율적으로 범죄를 통제한다면 그 만큼 범죄문제는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Thomas & Hyman, 1977), 순찰중인 경찰들을 자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Henig & Maxfield, 1978). 또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범죄피해 두려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cheider et al, 2003), 경찰의 지역순찰 활동이 많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문준섭·한상설, 2015). 한편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개인적 두려움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진 못했으나, 친족에 대한 대리적 두려움(vicarious fear of crime for family)과 일반적 대리 두려움을 낮추는 데는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장안식, 2012).

경찰의 역할은 범죄피해 방지 등에 국한하지 않고 범죄두려움 감소, 주민들과의

관계개선 등과 같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다(윤우석, 2015). 경찰과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물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도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azerolle, Soole, & Rombouts, 2007, Corder, 2010; 박정선·이성식, 2010). 또한 최근 효율적인 범죄억제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는 핫스팟 경찰활동(Hot Spots Policing)의 경우에도 범죄다발지역인 핫스팟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문제지역에서의 집중적 경찰활동을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Chermak, McGarrell, & Weiss, 2001; Corsaro, Brunson, & McGarrell, 2010). 그러나, 이러한 경찰활동이 오히려 범죄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몇몇 학자들은 경찰의 지역사회 접촉이 증가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Villarreal & Silva, 2006), 또한 핫스팟 경찰활동과 같은 엄격한 경찰개입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Kochel, 2011; Rosenbaum, 2006). 일례로 핫스팟에서의 무질서 단속과 관련된 한 연구(Hinkle & Weisburd, 2008)에 의하면, 경찰의 개입으로 무질서는 유의미하게 감소되긴 했으나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⁷⁾ 또한, Rosenbaum(2006)도 법집행 기반의 핫스팟 경찰활동이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격적인 경찰전략은 경찰과 지역사회 사이를 틀어지게 할 수 있으며, 나중에는 지역사회를 파트너 관계가 아닌 단순한 법집행의 대상으로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Weisburd & Telep, 2014). 이렇듯 경찰활동의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경찰활동이 대상지역의 주민들의 태도나 인식에

7) 다만, 이 연구에서의 핫스팟 지역은 비교지역보다 범죄 수준이 전체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에 대상지역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Weisburd & Telep, 2014)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주요 목적은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개입이 있기 전에 그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식과 그 인접지역 주민들 간의 인식을 비교하여 서로 간에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대상지역은 인천·경기권에서 기동순찰대가 운영되는 도시지역 한 곳을 선정하였고, 비교지역은 대상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곳을 비교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대상지역과 인구, 치안수요 측면에서 대상지역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상지역과 비교지역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표 1> 및 <그림 1>과 같다. 이를 보면 면적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인구, 경찰인력, 112신고건수 및 5대 범죄 발생현황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상지역에서 운영되는 기동순찰대는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경감급을 대상으로 하여 4개 순찰팀(팀당 10명)과 관리팀(2명) 등 총 43명으로 구성(순찰차 7대)되었으며, 2015년 8월 26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운영된다. 기동순찰대는 경찰서의 기존 지구대나 파출소는 그대로 유지한 채 4개 순찰팀이 4교대 근무형태로 야간시간대(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에 운영되며, 취약지역인 핫스팟 중심으로 집중

<표 1> 대상지역과 비교지역의 특성 비교(2015. 10월 기준)

구분		대상지역	비교지역
면적(km ²)		57.09	24.84
관할 행정동(개)		19	21
인구	계(명)	518,781	418,066
	남녀(%)	남 50.5 / 여 49.5	남 50.5 / 여 49.5
	20세 미만(%)	22.3	18.6
관할 경찰인력(명)		747(기동순찰대 포함)	693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명)		694.5	603.2
2014년 112신고(건)		125,776(비출동 4.6%)	119,969(비출동 4.5%)
2014년 5대 범죄 발생(건)	계	5,201	4,929
	살인	16	10
	강도	16	26
	강간·강제추행	191	205
	절도	1,855	1,814
	폭행	3,123	2,874

※ 자료 : 각 지역의 경찰서 통계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 참조



〈그림 1 : 대상지역과 비교지역 지도〉

순찰을 전개함과 동시에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격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 자료의 수집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대상지역에 기동순찰대가 운영되기 전인 2015년 8월 한달 간 대상지역 주민 200명, 비교지역 주민 200명 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 운영 전에 대상지역과 비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식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과 비교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인 주민들을 설문 대상으로 삼았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으로 수집이 되었고,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중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8명의 설문(대상지역 4명, 비교지역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변수 설명

설문에서 사용된 변수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되는데,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과 독립변수인 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에 대한 인식, 경찰신뢰도 및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1) 범죄의 두려움

범죄두려움의 측정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정서적 두려움이나 범죄 위험성에 대한 인지(perceived risk)와 관련된 질문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Weisburd et al, 2010). 범죄두려움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이 연구의 설문에서는 범죄의 두려움을 정서적 측면의 두려움과 인지적 측면의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perceived risk)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정서적 측면의 두려움은 일반적 범죄두려움으로, 특정한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범죄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 범죄두려움은 Weisburd와 동료들(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2가지 질문을 활용하였으며,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0.8075$). 그리고 구체적 범죄두려움은 Warr(1984)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절도, 강도, 폭행, 성폭행, 손괴, 주거침입, 감금, 협박, 차량손괴 등 9가지 유형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물었으며, ‘아주 낮다’부터 ‘아주 높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0.9525$).

2) 비공식적 사회통제

이 연구에서는 집합효율성의 하부개념으로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측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설문항목은 Sampson과 동료들(1997)의 연구를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만약 동네에서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맞고 있다면 그러지 못하게 어떤 조치(신고, 개입 등)를 취할 것이다’, ‘만약 불량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시끄럽게 한다면 그러지 못하게 어떤 조치(신고, 개입 등)를 취할 것이다’, ‘만약 동네에서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면 어떤 조치(신고, 감시 등)를 취할 것이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물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0.8678$).

3) 무질서에 대한 인식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Sampson & Raudenbush, 1999; Weisburd et al., 2006)하여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6개월 간 '쓰레기 등으로 지저분한 곳이 많은지', '빈집이나 공터가 많은지', '밤에 어둡거나 후미진 곳이 많은지', '수리나 정비가 필요한 거리가 많은지'(이상 물리적 무질서), '사람들 간 폭력다툼이 많은지',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 '밤에 술취한 사람들이 많은지', '노숙자나 부랑자가 많은지', '공공장소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성매매 관련 전단지 등이 많은지'(이상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0.8733$).

4) 경찰신뢰도 및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관련 변인들 연구는 대부분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찰 신뢰도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설문항목을 참고(Weisburd et al., 2006; Mazerolle, Ready, Terrill, & Waring, 2000)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소 경찰관들을 전반적으로 '신뢰하는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지지하는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지'로 물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0.8005$).

그리고, 경찰활동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6개월 간 경찰관이 '낮에 순찰하는 것을 보았는지', '밤에 순찰하는 것을 보았는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는지', '검문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을 보았는지'를 물어보았으며, '거의 매일', '1주일에 한번', '한 달에 몇 번', '한 달에 한번', '거의 없음'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0.7006$).

5) 범죄발생추세 인식

객관적인 범죄발생율의 증감과는 별도로 일반인들의 범죄발생율의 추세에 대한

인식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범죄율을 보여준다(최인섭·김지선·황지태, 2003). 따라서 범죄발생추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범죄발생추세와 관련한 설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범죄추세 및 거주하는 동네와 이웃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범죄발생 추세’와 ‘최근 6개월 간 우리 동네 범죄발생 추세’, 그리고 ‘최근 6개월 간 우리 옆 동네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으며, ‘크게 증가’, ‘증가한 편’, ‘변화없음’, ‘감소한 편’, ‘크게 감소’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 =0.8652).

5. 분석방법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상지역과 비교지역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분석을 하였고,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ata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대상지역은 남성이 약 49%, 여성이 약 51%의 비율이고, 비교지역은 남성 42.9%, 여성 57.1%의 비율로서 지역 간 남녀 비율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대상지역이 43.7세, 비교지역이 43.9세로 역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혼인여부와 관련해서는, 대상지역이 기혼 64.3%, 미혼 31.6%이고, 비교지역은 기혼 69.6%, 미혼 27.8%로 지역 간 기혼과 미혼의 비율에도 큰 차이는 없는 편이다. 학력의 경우도 두 지역 모두 대부분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간 학력 비율에도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대상지역	비교지역	전 체
성 별	남(명/%)	95 (49.22%)	84 (43.30%)	180 (46.25%)
	여(명/%)	98 (50.78%)	110 (56.70%)	212 (53.75%)
연령(평균)		43.69	43.94	43.81
혼인상태	기혼(명/%)	124 (64.25%)	135 (69.59%)	259 (66.93%)
	미혼(명/%)	61 (31.61%)	54 (27.84%)	115 (29.72%)
	기타(명/%)	8 (4.15%)	5 (2.58%)	13 (3.36%)
학 력	중학교(명/%)	8 (4.15%)	12 (6.19%)	20 (5.17%)
	고등학교(명/%)	76 (39.38%)	87 (44.85%)	163 (42.12%)
	대학교(명/%)	110 (55.44%)	92 (47.42%)	199 (51.42%)
	대학원(명/%)	2 (1.04%)	3 (1.55%)	5 (1.29%)

그리고 대상지역과 비교지역 간 주요 변인들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모두 대상지역과 비교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독립변수의 경우에도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수들에 있어서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경우, 5점 척도에서 대상지역(2.89)보다 비교지역(3.32)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지역보다 비교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범죄발생추세 인식에 있어서도 5점 척도에서 대상지역(2.73)이 비교지역(2.4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대상지역보다 비교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범죄발생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주요변수들에 대한 지역 간 평균값 비교(t-test)

변수		대상지역	비교지역	t/df
종속 변수	일반적 두려움	2.54	2.72	t=1.69/df=386
	구체적 두려움	2.05	2.15	t=1.26/df=386
독립 변수	비공식적 사회통제	2.89	3.32	t=4.5***/df=386
	무질서	2.5	2.54	t=0.70/df=386
	경찰 신뢰도	2.56	2.63	t=1.14/df=386
	경찰활동 인식	2.56	2.63	t=1.14/df=386
	범죄발생추세 인식	2.73	2.46	t=-4.19***/df=386

*p<.05, **p<.01, ***p<.001

2.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모든 독립변수의 vif계수 값이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일반적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대상지역과 비교지역 간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두 지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무질서가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발생추세를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할수록 범죄두려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은 비교지역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것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 중에서는 두 지역 모두 이전의 선행연구와 같이 성별이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며, 여성일수록 범죄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대상지역에서는 범죄발생추세 인식(-0.234), 무질서(0.218), 성별(0.211)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교지역에서는 성별(0.32)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무질서(0.31), 범죄발생추세 인식(-0.20), 경찰활동 인식(0.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지역에서의 설명력은 32%, 비교지역에서의 설명력은 27%로 나타나 두 지역 간 설명력의 크기에는 큰 차이는

〈표 4〉 일반적 범죄두려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 수	대상지역		비교지역	
	Beta	t	Beta	t
성별(기준: 여)	0,211	3,11**	0,32	5,01***
연령	0,076	0,79	-0,17	-1,87
혼인상태(기준: 기혼)				
미혼	-0,038	-0,44	-0,02	-0,25
기타	0,017	0,25	0,00	0,07
학력(기준: 중졸)				
고졸	-0,264	-1,48	-0,18	-1,25
대졸	-0,217	-1,15	-0,16	-1
대학원졸	0,036	0,5	-0,07	-0,95
무질서	0,218	3,25**	0,31	4,60***
비공식적 사회통제	0,104	1,56	0,09	1,37
경찰 신뢰도	0,001	0,02	-0,05	-0,77
범죄발생추세 인식	-0,234	-3,41**	-0,20	-2,97***
경찰활동 인식	0,108	1,56	0,14	2,09*
상수	.	2,41*	.	3,76***
N	193		194	
F	7,03***		6,51***	
R ²	0,32		0,27	

*p<.05, **p<.01, ***p<.001

없었다.

다음으로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지역 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여기에서도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두 지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무질서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발생추세를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할수록 범죄두려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은 대상지역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통제변수 중에서는 두 지역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 수	대상지역		비교지역	
	Beta	t	Beta	t
성별(기준: 여)	-0.071	-1.140	0.047	0.740
연령	-0.122	-1.380	-0.175	-1.920
혼인상태(기준: 기혼)				
미혼	-0.079	-0.980	-0.151	-1.900
기타	0.022	0.340	-0.043	-0.660
학력(기준: 중졸)				
고졸	-0.217	-1.310	-0.153	-1.060
대졸	-0.163	-0.930	-0.203	-1.290
대학원졸	-0.055	-0.820	-0.085	-1.180
무질서	0.366	5.880***	0.491	7.320***
비공식적 사회통제	0.016	0.250	0.082	1.240
경찰 신뢰도	-0.033	-0.540	-0.051	-0.780
범죄발생추세 인식	-0.298	-4.680***	-0.172	-2.580*
경찰활동 인식	0.209	3.280**	-0.039	-0.570
상수	.	3.610***	.	3.250**
N	193		194	
F	10.73***		6.94***	
R ²	0.42		0.27	

*p<.05, **p<.01, ***p<.001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무질서가 대상지역(0.366)과 비교지역(0.491) 모두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대상지역에서는 범죄발생추세 인식(-0.298), 경찰활동 인식(0.209) 순으로 나타났고, 비교지역에서는 범죄발생추세 인식(-0.172)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지역에서의 설명력은 42%, 비교지역에서의 설명력은 27%로 나타나 대상지역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를 통한 핫스팟 경찰활동이 전개될 지역에서의 범죄두려움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범죄두려움을 분석함에 있어 ‘기동순찰대 운영 지역(대상지역)의 범죄두려움’과 ‘인접지역(비교지역)의 범죄두려움’을 구분하여 어떻게 관련 요인들이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두려움은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두 지역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상지역보다 비교지역이 비공식적 사회통제 정도가 높았고 범죄발생을 감소추세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가 운영되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범죄두려움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범죄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두 지역 모두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공통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도 부합하는 부분이다. 흥미로운 것은 경찰활동 인식과 범죄두려움 간에 정(+)의 관계가 일부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비교지역에서는 경찰활동 인식이 증가할수록 일반적 범죄두려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지역에서는 경찰활동 인식이 증가할수록 구체적 두려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이 경찰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또는 범죄 예방적으로 인식하느냐 범죄 대응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경찰활동을 범죄 대응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범죄피해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우석, 2015).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동순찰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동순찰대의 운영지역 선정과 관련한 부분이다. 아직까지는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에 대한 선정기준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경찰청은 치안수요가 높은 곳 위주로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치안수

요의 기준은 112신고건수와 범죄발생 건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듯 하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112신고나 범죄발생 현황이 높다고 하여 그 지역의 주민들이 범죄두려움을 더 느낀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기동순찰대 운영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주민들의 체감적인 범죄안전도를 높이는 것에 있다면, 그 운영의 선정기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관적인 인식도 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인다. 앞으로도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이 전국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지역 선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다면 기동순찰대 운영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향후 기동순찰대의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찰활동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다. 기동순찰대를 통해 핫스팟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경찰관서에서는 집중순찰만의 단편적인 전략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질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질서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기초질서 준수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어두운 거리, 관리하지 않는 공터, 정비가 필요한 도로 등과 같은 물리적 무질서의 경우에는 기동순찰대 운영과는 별도로 환경 개선적 측면을 고려한 경찰활동도 추가로 진행하여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범죄발생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TV, 언론 등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되는데, 일부 선정적인 강력사건 등의 보도로 인해 자칫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주민 간담회, 치안 홍보 등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 지역주민들에게 범죄발생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범죄발생 추세가 어떠한지를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기동순찰대의 경찰활동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기동순찰대를 통해 경찰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가시성이 범죄예방적 측면이나 서비스적 측면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윤우석, 2015) 주민들의 범죄두려움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 운영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의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의 선정기준을 검토하였다는 점과 해당 지역의 범죄두려움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기동순찰대 운영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경찰활동 개입이 범죄두려움 등 지역주민들의 인식이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무쪼록 이 연구를 토대로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경찰활동 효과성 평가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4). 경찰백서. 경찰청
- 김상운·신재현 (2012).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2, 33-63
- 문준섭·한상설 (2015). 경찰 서비스와 시민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2, 335-360.
- 민휘경 (2013). 사회통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법연구, 3(2), 7-34
- 박영주·윤우석 (2013). 대학캠퍼스 내 대학생들의 범죄두려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1), 157-189.
- 박윤환·장현석 (2013). 지역수준 범죄피해 두려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공식범죄통계, 무질서, 집합적 효율성,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5(6), 59-88
- 박정선·이성식 (2010).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주요 모델들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3), 173-203.
- 박종승·이창한 (2014). 범죄다발지역(Hot Spots) 무인감시 시스템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경찰학논총, 9(2), 61-91
- 성용은·유영재 (2007). 시민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두려움 관계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261-283
- 성용은·최경식 (2009). 주거지 치안환경과 범죄피해위험성 인식 및 범죄두려움의 특성과 관계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5(2), 81-121
- 윤우석 (2012).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과 범죄피해의 관계검증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1), 319-354
- 윤우석 (2015). 가시적 경찰활동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경찰역할인식의 중요성. 한국범죄학, 9(1), 187-220
- 이성식·박정선·이정환 (2012). 지역무질서, 집합효율성, 범죄두려움의 관계: 세 모델의 검증. 피해자학연구, 20(1), 487-509
- 장안식 (2012). 범죄피해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 개인적 두려움과 대리 두려움의 비교 피해자학연구, 20(2), 87-119
- 최인섭·김지선·황지태 (2003).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응렬, 정우일 (2007). 범죄다발지역 집중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69, 351-392

- Braga, A. A., Papachristos, A. V., & Hureau, D. M. (2010). The concentration and stability of gun violence at micro places in Boston, 1980-2008.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6, 33-53.
- Braga, A. A., Papachristos, A. V., & Hureau, D. M. (2012). The effects of hot spots policing on crime: An updated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ustice Quarterly*. Advance online publication. doi: 10.1080/07418825.2012.673632
- Bursik, R. & Grasmick, H.G.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New York: Lexington Books*.
- Chermak, S., McGarrell, E. F., & Weiss, A. (2001). Citizens' perceptions of aggressive traffic enforcement strategies. *Justice Quarterly*, 18, 365-391.
- Cordner, G. (2010). Reducing fear of crime: strategies for police, 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U.S. Department of Justice*.
- Corsaro, N., Brunson, R. K., & McGarrell, E. F. (2010). Evaluating a policing strategy intended to disrupt an illicit street-level drug market. *Evaluation Review*, 34, 513-548.
- Eck, John E., Chainey, Spencer, Cameron, James G., Leitner, Michael & Wilson, Ronald E. (2005). Mapping Crime: Understanding Hot Spot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Washington, DC*.
- Ferguson, K.M. and C.H. Mindel. 2007. Modeling fear of crime in Dallas neighborhoods: a test of social capital theory. *Crime and Delinquency*, 53(2), 329-349.
- Franklin, T.W., C.A. Franklin, and N.E. Fearn. 2008.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disorder, and social integration models of fear of crime. *Social Justice Research*, 21, 204-227.
- Garofalo, J. (1981). The fear of crime: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2, 839-857.
- Garofalo, J. & Laub, J. (1978). The fear of crime: broadening our perspective. *Victimology*, 3, 242-253.
- Gibson, C.L., J. Zhao, N.P. Lovrich, and M.J. Gaffney. (2002). Social integration, individual perceptions of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ree cities. *Justice Quarterly*, 19(3), 536-563.
- Henig, J. and M. Maxfield, (1978). Reducing Fear of Crime : strategies for intervention, *Victimology*, 3.
- Hinkle, J. C., & Weisburd, D. (2008). The irony of broken windows: A micro-plac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sorder, focused police crackdowns, and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6, 503-512.
- Kochel, T. R. (2011). Constructing hot spots policing: Unexamined onsequences for

- disadvantaged populations and for police legitimacy.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22, 350-374.
- Koper, C.S. (2014). Assessing the Practice of Hot Spots Policing: Survey Results From a National Convenience Sample of Local Police Agencie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30(2), 123-146
- Kelling, G.L./T. Pate/D. Diekmann/C.E. Brown. (1974). The Kansas City Prevention Patrol Experiment: Summary Report. Washington DC: *Police Foundation*.
- Lum, C., Koper, C. S., & Telep, C. W. (2011). The evidence-based policing matrix.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7, 3-26.
- Mazerolle, L., Soole, D., & Rombouts, S. (2007). Crime prevention research reviews no.1: disrupting street drug markets, 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 McGarrell, E.F., A.L. Giacomazzi, and Q.C. Thurman. 1997. Neighborhood disorder, integration and the fear of crime. *Justice Quarterly*, 14, 479-499.
-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policing: The evidence (W. Skogan & K. Frydl, Ed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2008). Violent crime in America: What we know about hot spots enforcement. Washington, DC: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 Police Foundation. (1981). The Newark Foot Patrol Experiment. Washington, DC: *Police Foundation*.
- Ratcliffe, J.H., Taniguchi, T., Groff, E.R., Wood, J.D. (2011). The Philadelphia Foot Patrol Experiment: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Police Patrol Effectiveness in Violent Crime Hot Spots. *Criminology*, 49(3), 795-831
- Rosenbaum, D. P. (2006). The limits of hot spots policing. In D. Weisburd & A. A. Braga (Eds.), *Police innovation: Contrasting perspectives* (pp. 245-263).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s, C.E. and S.J. Jang. 2000. Neighborhood disorder, fear and mistrust: The buffering role of social ties with neighb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4), 401-420.
- Sampson, R.J., S. Raubdenbush, and F. Earls.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ampson, R.J. and S. Raubdenbush. (1999).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603-651.
- Scheider, M.C., Rowel, T. & Bezdikian, V. (2003). The impact of citizen perceptions of community policing on fear of crime, *Police Quarterly*, 6(4), 363-386.

- Sherman, L.W., Gartin, P.R., and Buerger, M.E. (1989). Repeated call address policing: The Minneapolis RECAP experiment, Final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Washington, DC: *Crime Control Institute*.
- Sherman, L.W., Rogan, D.P. (1995a). Deterrent effects of police raids on crackdowns: A randomized, controlled experiment. *Justice Quarterly*, 12(4), 755-781.
- Sherman, L.W., Rogan, D.P. (1995b). Effects of gun seizures on gun violence: Hot spots patrol in Kansas City. *Justice Quarterly*, 12(4), 673-694.
- Sherman, L.W., Weisburd, D. (1995). General deterrent effects of police patrol in crime 'Hot spo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ustice Quarterly*, 12(4), 626-648
- Taylor, R.B. (1999). The incivilities thesis: theory, measurement, and Policy, in Langworthy, R. (ed.), *Measuring What Matters*(pp.65-88).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Taylor, R.B. & Hale.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1), 151-189.
- Thomas, C.W., Hyman, J.M. (1977). Perception of crime, Fear of victimization, and Public Perceptions of Police Performance.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5(3), 305-317.
- Villarreal, A. & Silva, B. (2006).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 1725-1753.
- Warr, M.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the elderly more afraid? *Social Science Quarterly*, 65, 681-702
- Weisburd, D. (2008). Place-based policing. Washington, DC: *Police Foundation*.
- Weisburd, D., Bushway, S., Lum, C., Yang, S.-M. (2004). Trajectories of crime at places: A longitudinal study of street segments in the city of seattle. *Criminology*, 42(2), 283-321
- Weisburd, D., Green, L. (1995). Policing drug hot-spots: The Jersey City drug market analysis experiment. *Justice Quarterly*, 12, 711-735
- Weisburd, D., Mastrofski, S., McNally, A. M., Greenspan, R., & Willis, J. (2003). Reforming to preserve: Compstat and strategic problem solving in American policing.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2, 421-456.
- Weisburd, D., Telep, C.W. (2014). Hot Spots Policing: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30(2), 200-220
- Wilson, J. Q. & Kelling, G.. (1982).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211, 29-38.

【Abstract】

A Study on Fear of crime and its impact factors in the Hot Spots Policing target region: Comparative analysis on multi-purpose maneuver patrol

Shim, Myung-Sub · Lee, Chang-Han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ffective operational directions of multi-purpose maneuver patrol via practical analysis on the fear of crime and its impact factors in the Hot Spots Policing target region. Comparative Analysis on fear of crime and its impact factors such as informal social control, disorder, and the perception of police activities is conducted in regions of maneuver patrol against its neighborhood.

In Conclusion, no evident differences in fear of crime between the regions of maneuver patrol and its neighborhood were found. However, regions of maneuver patrol displayed significant distinctions in informal social control and perception of crime frequency in comparison to its neighborhood of no such patrol. In addition, it was noticed that in both regions disorder and perception of crime frequency served as the impact factors of fear of crime, which in part exhibits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rception of hot spots policing.

This study concludes that criterion in deciding on the regions of maneuver patrol should include subjective impact factors such as fear of crime.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along with the current unsatisfactory maneuver patrol system there needs specific guideline to enhance the perception of police activities including strengthened interactions with residents, improvement in social disorder.

Key words: Fear of Crime, Informal Social Control, Disorder, Perception of Police Activities, multi-purpose maneuver patrol, Hot Spots Policing